

한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art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 Study of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임 여 주 (Yeojoo Lim)**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과 대학에서 수행되는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정보학과의 학부와 대학원에 개설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을 강의한 경험이 있는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문헌정보학과 대학 학부 과정에서는 평균 1.7개의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개설 과목이 1개 이하인 학교가 전체 대학의 36%이며, 학부와 대학원 모두 개설 과목이 대체로 '독서지도론'에 편중되어 있었다. 설문 응답자 29명 중 자신이 담당하는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관한 내용을 가르친다'고 응답한 이는 24명(83%)이었다. 교수자들이 수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장르는 그림책이었으며,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장르는 SF, 판타지, 만화 등 다양했다. 상대적으로 소홀한 장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부족한 수업 시간은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가르치며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설문 응답자 중에는 스스로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대한 이해 역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일부 존재했는데, 면담 대상자들은 어린이청소년 문학과 관련한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강점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안타까워했다. 면담 대상자 모두와 일부 설문 응답자들은 문헌정보학과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육이 현장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자들은 토론, 스토리텔링 실습, 리뷰 작성 등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실제 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움이 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of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education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LIS) departments in Korean universities. Courses related to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in 34 LIS departments in Korea were investigated, and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were conducted with professors and instructors who have experience teaching courses related to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in LIS departments. The results show there are on average 1.7 courses related to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in undergraduate programs. 36% of schools had less than one course related to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and most of them were Reading Guidance courses. 83%(24 out of 29 people) of the survey participants said they teach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in their classes. The professors and instructors spent the most of their lecture time on picture books. They spent the minimum time on genres such as SF, Fantasy, and manhwa. Lack of time to teach so many things in short 16 weeks made them feel rushed and distressed. Some survey respondents regarded themselves as non-experts in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even though they had competency in that field, which shows the general atmosphere in the LIS field that LIS people are not qualified enough to be experts in children's literature. All interviewees and some survey respondents insisted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education in the LIS departments should be practical. Professors and instructors tried their best to incorporate diverse teaching methods, including discussions, storytelling, writing reviews, so their students can acquire proper knowledge on children's and young adult library services.

키워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어린이청소년 문학, 독서지도론, 어린이청소년자료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Reading Guidance,
Material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yeojoolim@pusan.ac.kr)

논문접수일자 : 2023년 11월 21일 논문심사일자 : 2023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자 : 2023년 12월 7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4) : 303-329, 202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4.303>

© Copyright © 2023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어린이청소년 담당 사서의 전문성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 중 하나가 장서에 대한 이해이다.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이나 청소년실, 학교도서관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할 때 어떤 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는 사서와 사서교사의 경험담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후에 IFLA로 표기)에서 발행한 <IFLA 0-18세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 지침> 개정판에 따르면 장서 제공은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어린이청소년 담당 사서는 “모든 연령집단의 욕구에 부합하고 발달적으로 적합한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IFLA, 2018, 4, 12). 미국도서관협회의 어린이서비스분과에서는 어린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가 갖추어야 할 주요 역량 중 하나로 어린이 자료에 대한 이해를 꼽는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어린이와 양육자의 요구를 반영한 독서 자료를 두루 알고, 다양한 형태와 장르의 독서 자료를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기르며, 서평 자료 읽기와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독서 자료의 최신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0). 한국의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주요 업무로 독서교육의 지원을,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사서교사 등의 업무 범위로 자료의 수집을 언급하고 있는데, 독서교육의 지원과 자료의 수집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독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이다. 임정훈 외(2021, 141)에 따르면 사서교사의 업무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교사, 정보 전문가, 경영자, 협

력적 리더의 직무 영역 중 사서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정보 전문가로서의 영역이며, 특히 장서 개발이 매우 중요한 업무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에서 장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 담당 사서를 배출하는 문헌정보학과 대학에서 어린이청소년 독서 자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어린이 담당 사서의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과 계속교육 과정의 현황을 살펴본 한복희(2010)의 연구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에서 어린이 담당 사서 양성과 관련한 교과목은 대학별로 평균 1.6개에 지나지 않았다. 어린이 담당 사서 양성과 관련한 교과목에서 다루는 주제가 독서 자료에 대한 이해 외에도 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 독서 프로그램 기획, 스토리텔링 등 다양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대학에서 습득할 수 있는 독서 자료 관련 지식은 미미할 수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복희(2010)의 연구가 발표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 국내 문헌정보학과 대학에서 어린이청소년 독서 자료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대학 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포괄적 의미의 독서 자료에는 인터넷 자료,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가 모두 포함되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문학 자료에 집중한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이란 그림책과 과학지식책, 청소년소설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읽는 픽션과 논픽션 모

두를 포괄한다.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어린이청소년 문학이 실제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되거나 관내 이용이 되며 도서관 프로그램에 자주 활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국내 문헌정보학과 대학 강단에서 수행되는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정보학과 학부 대학원에 개설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을 강의한 경험이 있는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과 대학의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과정을 살펴볼 뿐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육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더 넓은 범위인 어린이 담당 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 제시되었다. 이연옥(2005)의 연구에서는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늘어나고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의 리모델링이 활발해지는 등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할 전문 사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사서 재교육 과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가 진행된 시점을 기준

으로 국내 4년제 문헌정보학과 32개 중 71%인 23개 학과만이 독서지도 및 교육론을 개설하고 있었고, 어린이청소년자료론과 교육매체론은 각각 7개, 2개 학과에만 개설되어 있었다. 이연옥은 어린이 전문 사서 양성 관련 교과목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교과목이 주로 독서교육 및 지도론에 편중해 있어 학생들이 어린이자료와 미디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어린이자료에 대한 지식과 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상담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는 어린이사서가 전문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주요한 기반이 되기에”(이연옥, 2005, 253) 어린이 자료와 관련한 교과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혜미와 차미경(2007)은 국내 4년제 문헌정보학과에서 어린이 담당 사서 양성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는 23개교 중 강의계획안에 접근할 수 있는 20개교의 강의계획안을 수집하여 16주의 교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서지도 및 교육론 과목에서는 독서의 본질과 다양한 기능, 독서자료의 특성에 따른 독서교육 방법에 대한 이론적 강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청소년자료 과목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이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자료에 대한 이해, 어린이청소년서비스의 특징 등 어린이청소년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또한 도서관 현장에서 어린이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문헌정보학과 대학에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과 교과 내용을 조사했는데, ‘어린이문학/자료’와 ‘독서지도/교육’은 ‘어린이서비스개론(이해)’에 이어 사서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교과목이었다. 특히 ‘어린이문학/자료’ 교과목의 교과 내용 중 일부인 ‘어린이책의 선정과 선정기준’은 전체 과목과 교과 내용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희(2010)는 국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연구 자료들을 보완, 정리하여 2005년과 2007년, 2009년에 걸쳐 어린이 담당 사서 양성과 관련한 교과목의 개설 추이를 살펴보았다. 어린이 담당 사서 양성과 관련한 교과목으로는 독서지도 및 교육론, 아동 및 청소년자료, 독서치료,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연구,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세미나, 독서문화사 연구, 어린이 및 작은 도서관 경영론 등이 있었다. 2005년에 전체 32개 학과 중 23개교(71.9%)에만 개설되었던 어린이 담당 사서 양성과 관련한 교과목은 2007년에는 29개교(90.6%), 2009년에는 30개교(93.8%)에 개설되는 증가세를 보였는데, 연구자는 이를 두고 “어린이사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272) 것이라 해석하였다. 그러나, 교과목이 ‘독서지도 및 교육론’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과목이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점차 개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관련 교과목의 주를 이루는 것이 독서지도 및 교육론이라면, 영어권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중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관련 교과목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어린이청소년 자료이다. Adkins와 Higgins(2006)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다섯 나라의 문헌정보학과에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관련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자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과목 139개의 과목

명, 교과 요목,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 수업 목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섯 나라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업 주제는 ‘어린이청소년 자료’였다. 일부 시청각 자료와 전자자료 등을 제외하면 어린이청소년 자료 수업에서 다루는 것은 대부분 어린이청소년 문학이었다. 연구자들은 어린이청소년 자료에 대한 집중이 충분히 예상했던 바라고 말했는데, 도서관이 독자들을 기다리는 독서자료의 저장소라는 것을 생각하면 대학 교육과정에서 바로 그 독서자료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청소년 자료’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수업 주제로는 프로그램, 독자 상담, 참고봉사, 아웃리치 등을 다루는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서비스’가 있었다.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대한 강조는 Welch(1014)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Welch는 미국과 캐나다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관련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와 강사 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육경력, 강의 내용, 강의 방식 등을 물었다. 설문 결과, 참가자 중 34명(53.1%)이 수업에서 어린이문학을 가르친다고 대답했으며, 30명(48.4%)은 청소년 문학을 가르친다고 답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가르친다고 답한 이가 34명(53.1%), 청소년 프로그램을 가르친다고 답한 이가 26명(40.6%)인 것을 고려하면 프로그램보다 문학에 조금 더 큰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학과 프로그램 이외의 주제로는 학교도서관(23명: 35.9%), 어린이청소년 이외의 주제(27명: 42.2%)가 있었다.

Barriage, DiGiacomo & Greenhalgh(2022)는 미국 문헌정보학과 대학의 어린이청소년 서

비스 관련 교과목이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육에 치중해 있으나, 실제 교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이용자 대상 서비스 기술,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어린이청소년 전문 사서로서의 일상적인 사서 업무라는 점을 언급하며 문헌정보학과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교육이 학과의 울타리를 넘어 학제간(interdisciplinary) 협력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모두 신진 교수들로, 자신이 개발한 특별 교과목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 행태(Information behavior of children and youth)’, ‘정보 조직에서의 비공식 학습(Informal learning in information organizations)’, ‘게임, 리터러시, 의미와 학습(Game, literacy, meaning, and learning)’에 각각 아동학(childhood studies), 학습과학(learning sciences), 교육공학(educational technology)의 이론과 교수법을 적용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학제간 시도가 도서관 서비스의 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기회이자, 그들의 경험과 배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 독서 자료가 책 이외에도 다양하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업 시간에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고 창작해 본 경험이 후에 학생들이 사서와 정보 전문가로 일하게 될 때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문헌정보학과 대학에

서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문헌정보학과 의 학부와 대학원에 개설된 어린이문학 관련 교과목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문헌정보학과 대학 강단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강의한 경험이 있는 교수자 중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전문성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국내 문헌정보학과 대학 강단에서 어린이청소년서비스 관련 교과목을 강의한 경험이 있는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문헌정보학과 의 학부와 대학원에 개설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4년제와 2년제 문헌정보학과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과정표를 분석하였다.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총 35개였으며,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총 30개였다. 그중 학부 과정과 일반대학원 과정, 교육대학원 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는 10개, 교육대학원 없이 학부 과정과 일반대학원 과정만을 운영하는 학교는 19개, 일반대학원 없이 학부 과정과 교육대학원 과정만을 운영하는 학교는 1개였다. 홈페이지에 교육과정 표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 학과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다. 교과목명에 ‘독서’, ‘도서’, ‘자료’, ‘어린이청소년’, ‘아동청소년’ 등의 용어가 들어간 것을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이라 판단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독서치료’, ‘독서요법이론’ 등 독서치료 관련 교과목과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론’, ‘어린이청소년서비스연구’ 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관한 교과목, ‘독서문화프로그램기획’, ‘독서교육프로그램개발론’

등 독서 프로그램에 집중된 교과목도 검색이 된다. 독서치료 관련 교과목의 경우 독서치료의 대상자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포함되며 독서치료 과정에 활용하는 독서자료에 어린이청소년 문학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므로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와 독서 프로그램은 어린이청소년책을 중심으로 기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관련된 교과목 역시 본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국내 문헌정보학과 대학 강단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¹⁾을 강의한 경험이 있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편의적 표집법과 눈덩이 표집법을 활용하였다. 국내 4년제와 2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에서 교수진의 연구 분야와 담당 교과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구 분야와 담당 교과목이 어린이청소년 문학과 관련 있는 교수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연구의 참여 의사를 물었다. 이메일에는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온라인(네이버폼)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학과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과 관련 있는 교수진을 찾지 못한 경우, 세부 연구 분야가 다른 교수진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과 내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연구 참여를 묻는 이메일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을 시간강사가 강의하는 경우가 많으나,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학과 홈페이지에서 강사진의 연구 분야와 담당 교과목, 연락처를 찾을 수 없

어, 설문 참여를 의뢰한 교수진에게 만일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다른 교원이 있다면 링크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설문 참여를 독려하는 이메일은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37명에게 전달되었으며, 설문 종료 기간인 8월 10일까지 설문 참여 인원은 총 29명이었다. 설문 참여한 이들의 연령대로는 50대가 48.3%(14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34.5%(10명), 60대가 17.2%(5명)로 뒤를 이었다. 20대와 30대,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없었다. 설문 참여한 29명 중 20명이 여성, 8명이 남성이었으며, 1명은 성별을 말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설문 항목은 미리 실시한 심층 면담에서 나온 분석 결과와 문헌정보학 어린이청소년서비스 교과목에 관한 선행연구인 정혜미, 차미경(2007), 한복희(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항목의 내용은 크게 (1)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에서 다루는 내용, (2)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에서 다루는 세부 주제 영역과 장르, 수업 방식, (3)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 역량에 대한 생각, (4) 문헌정보학과 대학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심층 면담은 국내 문헌정보학과 대학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을 강의한 경험이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자로 면담 대상자의 범위를 좁

1) 설문지에서는 '어린이문학 관련 교과목'이라는 표현 대신 '어린이서비스 관련 교과목'이라는 표현을 썼다. 응답자의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문학 관련 교과목'은 '독서', '도서', '자료', '어린이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용어가 들어간 모든 교과목을 의미하지만, 사람에 따라 이를 협의(狹義)로 해석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픽션(fiction)을 가르치는 과목에 한정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힌 이유는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충분할 때 더 풍성한 대답이 가능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성의 기준은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거나, 어린이청소년 문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거나, 어린이청소년 문학과 관련한 책이나 다른 출판물을 펴낸 경험이 있는가이다. 편의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총 4명의 면담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이들의 문헌정보학과 대학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수업을 강의한 경력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25년까지 다양했다. 4명 중 3명은 시간강사로, 1명은 교수로 대학 강단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강의해 왔다. 면담 대상자들은 대학의 교수자 외에도 어린이청소년 문학지 서평가, 스토리텔러, 어린이도서관 사서, 공공도서관 사서, 학교도서관 사서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다. 면담 대상자의 상세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면담은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대면 면담, 전화 면담, 화상회의(zoom) 면담 등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종료 후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면담은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되었다. 기본 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대화의 흐름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에 관하여 연결되는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기도 했다. 기본 질문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면담 소요 시간은 최소 75분에서 최대 90분 사이로, 평균 면담 시간은 82분이었다. 면담 내용은 면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 후 전사(transcribe)되었으며, NVivo를 활용해 기술적인 코딩(descriptive coding)과 축코딩(axial coding)을 거쳐 의미를 도출하였다.

4. 분석 결과

4.1 문헌정보학과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 현황

국내 문헌정보학과와 학부와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홈페이지와 학과사무실 문의를 통해 교육과정표를 입수하고 분석

<표 1> 연구에 참가한 면담 대상자의 정보

면담 대상자	대학 강의 경력	대학 강의 외 어린이문학 관련 경력	성별
A	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문학지 서평가 •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서평 출판 	여성
B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문학지 서평가 • 스토리텔러 •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논문 발표 및 서평 출판 	여성
C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도서관 사서 •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논문 발표 	여성
D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사서 • 학교도서관 사서 •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논문 발표 및 연구 프로젝트 진행 	여성

〈표 2〉 면담 기본 질문 목록

	질문의 범주	질문의 내용
1	담당 교과목 및 수업 방법	• 문헌정보학과에서 가르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 (강의 목표, 어린이청소년전문 사서 역량에 기여한 정도, 뿌듯하거나 아쉬웠던 점, 학생들의 반응과 강의 평가 포함)
2		• 문헌정보학과에서 강의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의 수업 방식
3		• 문헌정보학과에서 강의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수업에서 학생들과의 소통, 학생들 간의 소통
4		• 스스로 개설했거나 개설하고 싶었던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과 이유
5	개인적 경험	• 문헌정보학과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가르치게 된 계기
6		• 문헌정보학과가 아닌 다른 학문 영역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가르친 경험의 유무
7		•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공부한 경로
8	문헌정보학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육의 의미	• 문헌정보학과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관계에 대한 생각
9		•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 영역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
10		•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다른 학과와 비교했을 때, 문헌정보학과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육이 가지는 특별한 점
11		• 현재 문헌정보학과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과목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12		• 한국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육의 지향점에 관한 생각

한 결과,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35개 대학 전체에서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학부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는 대학은 35개 대학 중 34개(97%)였으며, 대학원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는 대학은 35개 대학 중 19개(54%)였다. 그중 교육대학원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는 대학은 11개(31%), 일반대학원에서 제공하는 대학은 15개(43%)였다. 교육대학원과 일반대학원 모두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는 대학은 경기대, 공주대, 동의대, 명지대, 상명대, 신라대, 전북대로 총 7개(20%)였다. 대학별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은 〈부록 1〉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교과목명에 따라 35개 대학에 개설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이

표에서는 과목명이 비슷한 것들을 묶어 그중 가장 많은 대학에서 과목명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을 각 카테고리의 대표 교과목명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학부 과정에서 18개 학교가 ‘독서지도론’을, 5개 학교가 ‘독서지도’를, 4개 학교가 ‘독서교육론’을, 3개 학교가 ‘독서교육’을, 2개 학교가 각각 ‘청소년독서교육’과 ‘독서지도입문’을 개설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6개 학교가 ‘독서지도론’을, 4개 학교가 ‘독서지도연구’를, 2개 학교가 ‘독서교육론’을, 2개 학교가 ‘독서지도특강’을, 그 외 다수 학교가 각각 다른 이름으로 독서지도론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가장 많은 학교가 채택한 과목명인 ‘독서지도론’을 해당 카테고리의 대표 교과목명으로 삼았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의 문헌정보학과 대학 35개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은 총 119개로, 학부와 대학원을 합쳤을 때 평균 3.4개의 관련 교과목이 개설

〈표 3〉 국내 문헌정보학과 학부와 대학원에 개설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 분석

교과목	학부과정 개설 (과목 수)	교육대학원과정 개설 (과목 수)	일반대학원과정 개설 (과목 수)	계
독서지도론	31	11	13 ²⁾	55
어린이청소년자료	11	1	8 ³⁾	20
독서치료	3	3	9	15
독서프로그램개발론	3	3	2	8
어린이청소년서비스론	3	1	2	6
독서경영론	1	0	1	2
독서교육의 실제	1	1	0	2
독서상담및프로그램운영	1	1	0	2
독서논술특강	0	1	0	1
독서문화연구	0	0	1	1
독서지도실습	1	0	0	1
독서학개론	1	0	0	1
독서활용교육론	1	0	0	1
디지털독서론	0	0	1	1
멀티미디어독서론	1	0	0	1
아동청소년정보	1	0	0	1
학교교육과독서지도	0	1	0	1
계	59	23	37	119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부만을 놓고 계산했을 때는 평균 1.7개의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전체 35개 학교 중 1개교에서는 0개, 18개교에서는 1개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전체 대학의 36%에서 1개 이하의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개 학교에서는 2개, 5개 학교(건국대, 경성대, 계명대, 공주대, 전북대)에서는 3개, 2개 학교(경기대, 전남대)

에서는 4개의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었다. 2023년 12월 현재 교육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문헌정보학과 대학은 전국에 총 11개가 있다. 그런데, 〈표 3〉에 의하면 교육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은 단지 23개 불과하여, 학교당 평균 2개의 교과목만 제공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자료 과목은 11개 중 1개 대학에만

2) 경기대의 경우 일반대학원 과정에 '독서지도연구'와 '독서지도특론'이 각각 개설되어 있어 이를 '독서지도론'과목 2개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일반대학원과정에 개설된 '독서지도론' 과목은 총 13개이지만, 일반대학원에서 '독서지도론' 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수는 12이다.

3) 경기대의 경우 일반대학원 과정에 '어린이자료특론', '어린이청소년자료연구', '어린이청소년자료특론'이 각각 개설되어 있어 이를 '어린이청소년자료' 3개로 간주했다. 또한, 서울여대의 경우 '아동독서자료와정보서비스'와 '청소년독서자료와정보서비스'가 각각 개설되어 있어 이를 '어린이청소년자료' 2개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일반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어린이청소년자료' 과목은 총 8개이지만, 일반대학원에서 '어린이청소년자료' 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수는 5이다.

개설되어 있었다.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과정이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며 어린이청소년대상 서비스를 제공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어린이청소년자료에 대한 충분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2023년 12월 기준 일반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문헌정보학과 대학 29개에 개설된 어린이청소년관련 교과목은 총 37개로, 평균 1.3개의 관련 과목이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9개 중 12개 대학(41%)이 어린이청소년관련 교과목을 전혀 개설하지 않고 있었으며, 나머지 17개 대학에서 평균 2.2개씩의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었다.

〈표 3〉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개설 과목이 '독서지도론'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부 과정에서 독서지도론을 개설한 학교는 35개 중 31개, 교육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한 학교는 11개 중 11개, 일반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한 학교는 29개 중 12개이다. 학부 과정과 교육대학원 과정에서 독서지도론은 거의 필수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 많이 개설된 교과목인 '어린이청소년자료'는 학부 과정에서 35개 중 11개, 교육대학원 과정에서 11개 중 1개, 일반대학원 과정에서 29개 중 5개 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독서지도론이 개설된 학교의 수와 차이가 크다. 이는,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강하는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유일한 교과목이 독서지도론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많은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으나 그래도 한 개 학교 이상에서 개설된 교과목으로는 독서치료(15개 학교), 독서프로그램 개발론(8), 어린이청소년서비스론(6), 독서경영론(2), 독서교육의실제(2), 독서상담및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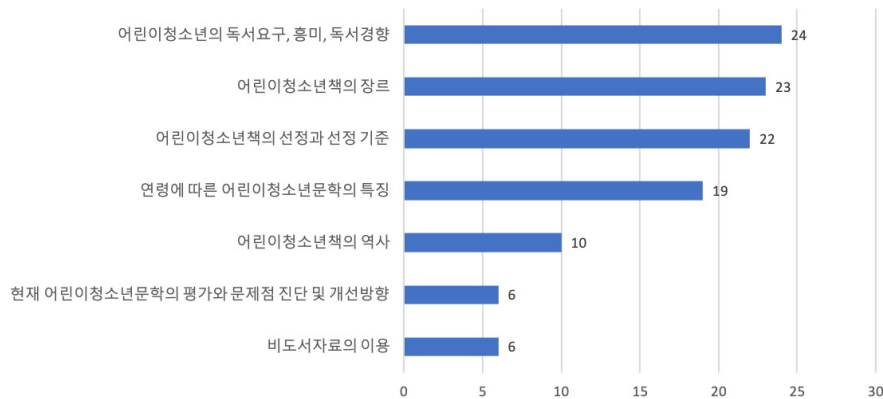
램운영(1) 등이 있다.

4.2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의 교수 방식 및 내용

설문조사에 참여한 29명의 교수자 중 18명(62%)이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 중 독서지도론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문헌정보학과 대학에서 개설하는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 중 독서지도론 과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명(10%)은 어린이청소년자료만 담당하고 있었으며, 5명(17%)은 독서지도론과 어린이청소년자료 두 과목 모두 가르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독서지도론과 함께 독서치료, 어린이청소년자료, 어린이청소년서비스론, 독서지도실습 등의 과목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3명(10%) 있었다.

자신이 담당하는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관한 내용을 가르친다고 응답한 이는 29명 중 24명(83%)이었다. 1명(3%)은 직접 가르치지 않지만, 특별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다고 응답했다. 4명(14%)은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앞선 질문에서 모든 응답자가 최소한 독서지도론이나 어린이청소년자료 둘 중 한 과목은 가르친다고 대답한 것을 감안했을 때,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독서지도론 수업, 혹은 어린이청소년자료 수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1〉은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세부 주제 영역이다.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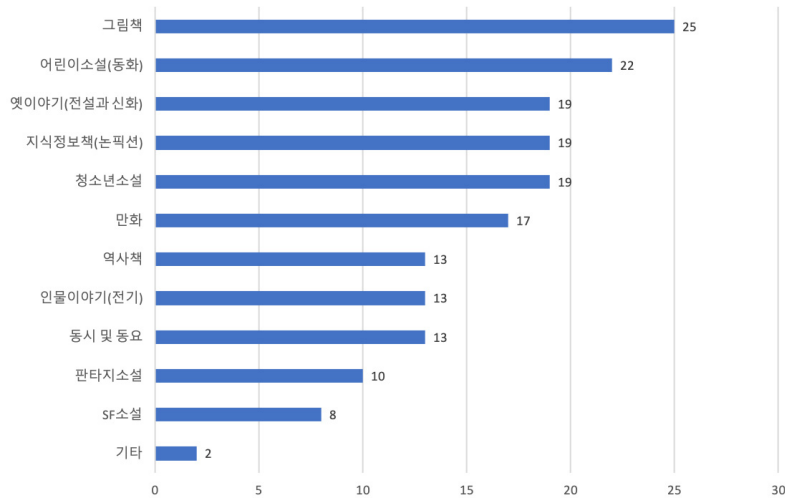
〈그림 1〉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세부 주제 영역

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가르친다고 응답한 24명과 직접 가르치지 않는 않지만, 특별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다고 응답한 1명, 총 25명 중 24명(96%)이 수업에서 ‘어린이청소년의 독서요구, 흥미, 독서경향’을 다룬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청소년책의 장르’를 다루는 교수자는 23명(96%), ‘어린이청소년책의 선정과 선정 기준’을 다루는 교수자는 22명(92%)이었고, ‘연령에 따른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특징’을 다루는 교수자는 19명(79%)이었다.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지는 세부 주제 영역은 ‘어린이청소년책의 역사’(10명), ‘현재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평가와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6명), ‘비도서자료의 이용’(6명)이었다. 많은 연구자가 도서관 어린이청소년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대한 이해와 자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Brehm-Heeger, 2008; Horikawa, 2005; Walter, 2001). 응답 결과에 따르면 교수자들은 이를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도서자료의 이용’을 수업에서 다루는 교수자가 6명(25%)에 머무른 것은 어린이청소년의 최근 독서 행태 변화에 학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학년 이상의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중 45.8%가 웹소설 읽기를 독서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넷 신문 읽기를 독서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2.2%, 웹툰 보기/읽기는 29.0%, 챗북⁴⁾ 읽기는 16.0%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241). 어린이청소년이 생각하는 독서 자료와 사서가 생각하는 독서 자료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도서자료의 이용에 대한 내용이 대학 수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2〉는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직접 가르치거나 강사를 초빙하여 가르친다고 응답한 25명에게 수업에서 다루는 장르를 모두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온 결과이다. 응답자 모두가 수업에서 그림책을 다루고 있었다. 그 뒤를 어린이

4) 채팅(문자 대화) 형식의 콘텐츠 읽기



〈그림 2〉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에서 다루는 장르

소설(동화)(22명; 88%), 옛이야기(전설과 신화), 지식정보책(논픽션), 청소년소설(각 19명; 76%), 만화(17명; 68%)가 이었다. 역사책, 인물이야기(전기), 동시 및 동요는 각각 13명(52%)의 응답자가 수업에서 다루고 있었으며, 판타지 소설을 다루는 응답자는 10명(40%), SF소설을 다루는 응답자는 8명(32%)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멀티미디어자료(오프라인상의 멀티미디어 형태 자료 및 온라인상의 자료 활용 등을 언급함)”, “주로 그림책과 옛이야기를 다루면서 이론적 논의의 대상에는 모든 장르가 포함됨”이 있었다.

교수자들이 어린이문학 관련 교과목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장르 역시 그림책이었다. 25명 중 19명(76%)이 한 학기 수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장르가 그림책이라고 응답하였다. 2명(8%)은 어린이소설(동화)에, 1명(4%)은 지식정보책(논픽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했다. 그 외 “그림책, 동화, 청소년소설, 만화를 한 차시씩 다루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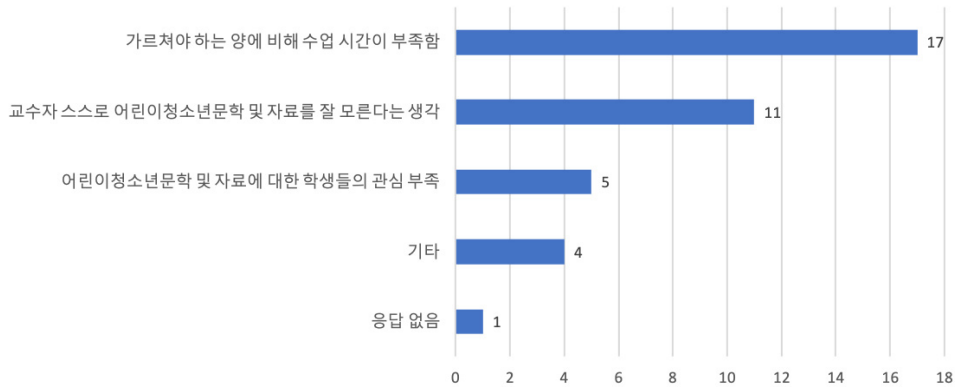
응답, “장르별로 비슷한 시간을 할애했다”는 응답, “하나의 장르에 치중하기보다는 장르별 특징 및 독자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응답이 각 1명씩 있었다. 그림책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교육과정 내에서 실습과 체험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르이기 때문이다. 그림책은 다른 장르에 비해 텍스트의 분량이 적어 수업 시간 내에 학생들과 함께 전문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모두가 같은 책을 읽고 토론 및 평가를 진행하기에도 적절하며, 스토리텔링 발표 과제에 활용하기에도 용이하다. 둘째, 도서관 실무에 활용하기에 좋은 매체이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그림책은 도서관 어린이서비스 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활용 가치가 높다. 도서관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장차 어린이자료실에서 사서로 근무하게 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독자층 스펙트럼이 가장 넓고 대중적이기 때문이다. 그림책은 영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

령대가 감상할 수 있는 매체이다.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하고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그림책에 대한 이론서가 많아서, 어린이 도서의 대표 장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 유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등의 이유가 있었다.

교수자들이 어린이문학 관련 교과목에서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장르는 다양했다. SF 소설이 5명(20%), 만화가 4명(16%), 청소년 소설과 지식정보책(논픽션)이 각각 3명(12%)씩, 옛이야기(전설과 신화)가 2명(8%), 동시 및 동요가 1명(4%)이었다. 장르를 불문하고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이들이 언급한 것은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3년 현재 학부 기준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은 평균 1.5개이며, 전체 대학의 53%에서 1개 이하의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단 하나의 수업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두루 다루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적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제외하는 장르가 생기는 것이다. 이때 적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제외하는 기준은 관련 참고 자료의 부족, 교수자의 취향, 대학생과 장르에 대한 교수자의 선입견 등이다. “SF소설은 대학생이라면 거의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응답자 본인) SF소설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어서”, “SF소설은 깊이 있는 사고형성을 위해서는 타 자료에 비해 조금 못 미친다고 판단되어”, “대학생들에게 청소년소설은 인기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옛이야기는) 현 시대에 어울리지 않거나 이미 충분히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창작동화의 발달로 (옛이야기로는) 흥미유발이 어려워서”, “(지식정보책은) 학생들의 독서교육

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져서” 등의 이유가 언급되었다. 특정 장르를 제외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응답도 여럿 있었고, 해당 장르에 관해 가르칠 것이 너무 많아 오히려 간략히 살펴본다는 응답도 있었다 - “만화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다 섭렵해서 수업 진도를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기도 해서 대략적으로만 살펴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의 부족은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목을 가르치며 느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직접 가르치거나 강사를 초빙하여 가르친다고 응답한 25명 중 20명(80%)이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가르치며 어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응답자는 4명뿐이었다. (1명은 응답하지 않음)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한 20명 중 17명이 가르쳐야 하는 양에 비해 수업 시간이 부족함을 꼽았다. 교수자 스스로 어린이청소년 문학 및 자료를 잘 모른다는 생각을 어려움의 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11명이었다.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을 가르치는 이들 중 44%(25명 중 11명)가 스스로 수업하는 자료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자각하는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타 응답으로는 “교수자가 지속적으로 어린이청소년책을 읽기가 어려움”,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대해 폭넓게 다루는 자료 부족”, “학생 참여형 수업(읽기, 토론 등)을 진행하기에 너무 많은 수강생 수”, “어린이청소년의 발달단계와 같은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어린이와의 수업 등의 현장 경험의 부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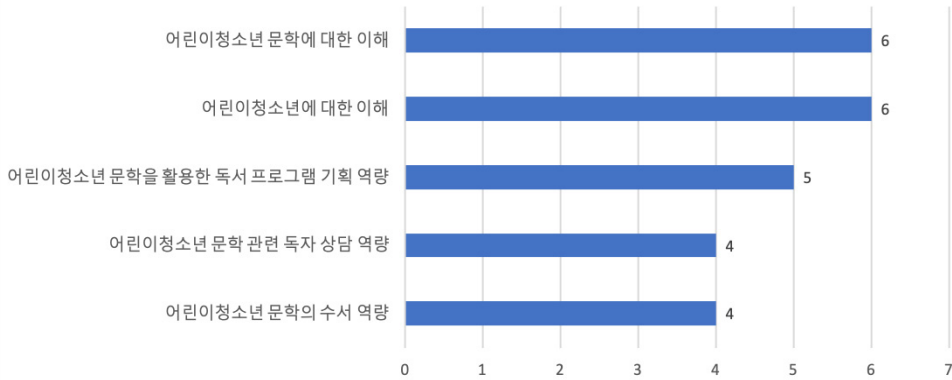
〈그림 3〉 어린이청소년 문학 가르치며 느낀 어려움

4.3 문헌정보학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육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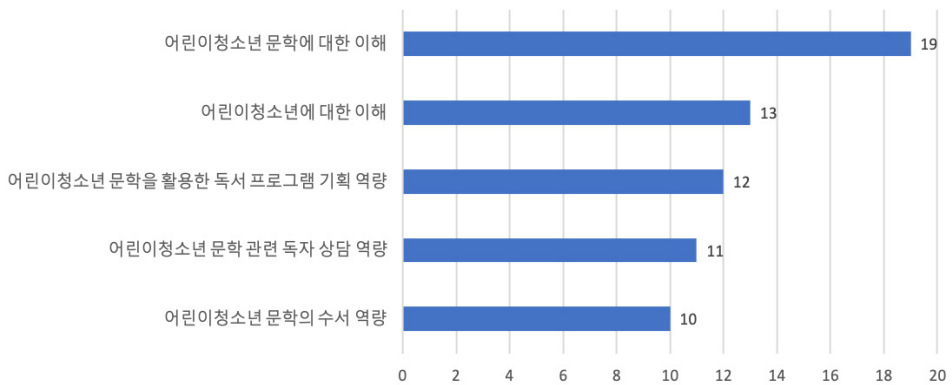
4.3.1 어린이청소년 문학 전문가의 자격과 필요

설문에 참여한 29명 모두에게 스스로 어린이 청소년 문학의 전문가라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7명(2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나머지 22명(76%)은 스스로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앞서(〈그림 3〉 참고) 스스로 어린이청소년 문학 및 자료를 잘 모른다고 말한 교수자가 11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어린이청소년 문학 및 자료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교수자가 11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스로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응답한 이들 22명 중 19명(86%)이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대한 이해’를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꼽았는데(〈그림 5〉 참고), 이를 앞의 설문 결과와 함께 해석하는 데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따른다. 19명 중 11명은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어린이청

소년 문학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며, 본인이 그 역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혼란스러운 것은 나머지 8명이다. 이들은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가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스스로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교수자 7명과 스스로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수자 22명이 생각하는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나타낸 표이다. 절대적인 응답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의 크기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스스로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교수자들은 다섯 개 역량의 중요도를 고루 언급한 반면, 스스로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수자들은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대한 이해’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스스로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교수자 7명이 생각하는)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



〈그림 5〉 (스스로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수자 22명이 생각하는)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

대학에서 12년간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강의를 한 경력이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문학지 서평가로도 활동해 오고 있는 면담 대상자 B는 ‘전문가’ 인식에 관해 본인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B가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에 그림책 작가 관련 논문을 투고했을 때 심사자 중 한 명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왜 이런 논문을 쓰느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빈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했다고 한다. 스스로 어린이

청소년 문학 전문가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왔던 B는 “이 사람들(문헌정보학과 전공자들)은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내부의 시선이 이러하데 외부에서는 더더욱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대한 사서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감을 느꼈다고 한다.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다른 전공을 또 이수해야 하는 걸까 생각하던 B의 고민은 문헌

정보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에까지 확장되었다. 어린이청소년 문학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문헌정보학의 세부 전공 영역 중 상당수가 다른 학과 혹은 학문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각기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나름의 고군분투를 하고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복합학으로서 문헌정보학이 가지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면담 대상자 A와의 대화에도 등장했다. 어린이청소년 문학지 서평가로 오래 활동해 오고 있는 A는 문헌정보학과 대학에서 25년간 어린이청소년 자료를 강의해 오면서 ‘문헌정보학과 어린이문학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질문이 늘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문헌정보학과에서 어린이문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다른 학과 사람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다루는 타 학과는 국문학과, 국어교육과, 문예창작과, 아동학과, 영문학과, 초등교육과 등이 있다.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다른 학과 전공자들과 협업을 한 경험이 많은 면담 대상자 C와 D에 따르면 각 전공 분야마다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대하는 자세에 차이가 있다. 유아교육과는 독서와 함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 강하고, 국어교육과는 작품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예창작과는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유아교육과와 국어교육과 모두 연령과 학년에 따른 읽기 수준을 중요하게 보는 편이다. 중요한 것은 문헌정보학 고유의 특성, 고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그를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전공자로서의 전문성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B의 주장이다.

D는 사서들이 어린이청소년 책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과에서 대중을 상대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소개하는 책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A는 학부 시절 많이 들었던 말이 “사서는 다양한 주제 분야에 대해 제너럴(general)하게 알아도 넓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헌정보학 전공자는 알아야 할 주제 분야가 많으므로 모든 주제를 다 깊게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때문에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A는 다른 분야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문헌정보학과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했다. A가 알고 있는 출판 편집자들은 사서가 도서관 이용자와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서들의 의견을 늘 궁금해하지만, 사서들이 참 조용한 집단이라며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강점을 외부에서는 알고 있는데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D는 사서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를 도서관의 공공적 성격에서 찾았다. 사서는 공공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특정한 책을 추천하거나 목록을 발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사서들이 만든 좋은 책 목록이 각각의 도서관 내에서만 소비되고 도서관 바깥으로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관한 사서의 전문성은 각자의 작은 커뮤니티 내에서만 공유되는 것에 머문다. 같은 문헌정보학 내

에서도 서로의 전문성을 확인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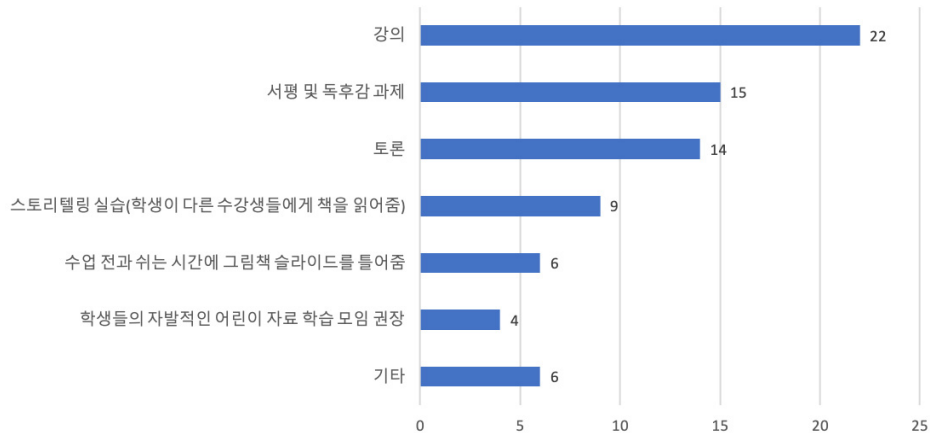
4.3.2 현장 중심의 교육

면담 대상자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한 것이 문헌정보학과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육이 현장 중심의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설문 응답자들에게 ‘문헌정보학과 대학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1/3의 응답자가 현장 중심의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장 중심의 교육이라 함은 실제 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움이 되는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을 뜻한다. 현장 중심 교육의 기본은 다양한 독서 자료를 두루 아는 것이다. 면담 대상자 D는 수업에서 “사서는 수준별, 연령별, 상황별 등에 맞는 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책 목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용자에게 적합한 책을 권하고 다양한 이용자를 위해 도서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책을 알아야 한다. 면담 대상자 C는 도서관에 주제별, 연령별로 다양한 자료가 존재하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서지 사항을 정리하는 정도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책을 많이 아는 것은 도서관 현장에서 이용자에게 전문성을 보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면담 대상자 A는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에 발령받은 초임 사서들이 어린이책에 관한 지식이 없는 경우 한동안 “엄마들한테 놀린다”(어린이책에 대한 지식이 양육자들에 비해 부족해 무시당한다는 뜻)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며, 대학 교육과정에서 어린이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에 대한 이해는 도서관 프로그램과 행사의 진행에도 연결된다. 면담 대상자 D에 따르면 도서관의 역할 중 하나가 작가의 지원과 홍보이며, 이는 작품과 작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림 6〉은 학생들이 다양한 독서 자료를 접하게 하기 위해 교수자들이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직접 가르치거나 강사를 초빙하여 가르친다고 응답한 25명 중 22명(88%)이 강의 형식을 활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강의 외에도 다양한 수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수업에 서평 및 독후감 과제를 포함하는 교수자가 15명(60%), 토론을 실시하는 교수자가 14명(56%), 학생이 다른 수강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스토리텔링 실습을 실시하는 교수자가 9명(36%), 수업 전과 쉬는 시간에 그림책 슬라이드를 틀어주는 교수자가 6명(24%), 학생들의 자발적인 어린이 자료 학습 모임을 권장하는 교수자가 4명(16%)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학생들의 발표 수업”, “연구 과제 수행 후 결과 발표 토론”, “(교수자가 직접) 수업 시간에 책을 읽어주거나 스토리텔링을 실행함”, “(교수자가 직접) 그림책 읽어 주기, 구연하기, 북토크, 서평하기”, “전문가 초청 특강”, “외부강사 초청 및 체험”이 있었다. 단지 이론 중심의 교육이 아닌, 다양한 독서 자료를 접하고 그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 독서 자료를 읽는 것은 단순히 어린이청소년 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림 6〉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가르칠 때 활용하는 수업 방식

머무르지 않는다. 면담 대상자 C는 문헌정보학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육의 특징이 “문학 자체를 즐기게 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사서는 이용자를 독서의 즐거움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사서 스스로가 독서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C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과 책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자신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이유와 책 읽기를 싫어하는 이유를 적어보게 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정의한 독서 이론과 비교해보게 한다. 이 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독서의 의미와 즐거움을 체득하게 되고, 이는 이들이 도서관 현장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큰 자산이 된다. 직접 책을 읽고 그에 관해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는 작업도 책과 자신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 면담 대상자 모두가 책을 읽은 후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과제 혹은 활동을 수업에 포함하고 있었다. A는 장르별로 책 다섯 권을 읽고 대상 독자, 자신의 평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 그 책을 수서 할

것인지 여부를 리뷰 형태로 작성해 제출하는 과제를 내준다고 했다. C는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거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책의 리뷰 쓰기를 과제로 내주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거나 웹자료실을 통해 서로의 리뷰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 D는 모둠별로 한 작가의 그림책을 함께 본 후 인상 깊었던 책을 소개하는 글을 레포트로 제출하게 한다.

면담 대상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한 것은 문헌정보학에서 독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마다 갖고 있는 배경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책을 읽어도 모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지역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가 다르고 이용자의 독서력과 환경, 선호도, 요구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이용자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이용자에 대한 이해에는 어린이청소년의 발달단계에 관한 공부도 포함된다. A는 에릭슨과 피아제 정도는 알아 두면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발달심리 이론을 수업에서 가르친다고 했으며, D

역시 어린이청소년자료 수업의 초반부에 어린이의 발달을 가르친다고 했다.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각 이용자와 상황에 맞는 독서 자료를 두루 접하게 하고 싶은 것이 교수자들의 바람이지만, 막상 수업이 쫓기듯 진행될 때도 많다. 가르치고 싶은 양에 비해 부족한 수업 시간 때문이다. 앞선 설문 응답에서도 볼 수 있듯 가르쳐야 하는 양에 비해 수업 시간이 부족한 것은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다.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책을 소개하거나 학생들 스스로 읽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우선순위에서 주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은 고전이라 불리는 외국 작가의 작품이다. 레오 리오니, 모리스 센닥, 에릭 칼, 존 버닝햄 등 서양 작가와 그들의 작품들이 주로 포함된다. 면담 대상자 D에 의하면 고전 작품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꾸준히 찾을 책이기 때문에 고전을 읽는 것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예비 사서에게 필수적인 교육이다. 그 외 뉴베리 상, 칼데콧 상, 안데르센 상 등을 받은 작품, 강경수, 백희나, 이수지와 같은 한국의 대형 작가와 작품이 우선순위의 상위권에 오른다. 최근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내 작가들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 짧게 소개하거나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도서관 현장에서 작가와의 만남이나 독후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 책 중 상당수가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면담 대상자들은 만일 교과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면 '어린이청소년자료' 과목을 '어린이자료'와 '청소년자료'로 분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서로 다른 이용자층을 각각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으며 각 이용자층에 맞는 독서 자료를 더 많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담 대상자 C는 어린이 전문 사서와 청소년 전문 사서가 필요로 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 입시 준비에 거의 모든 학업 일정이 맞추어져 있는 한국 청소년에게 도서관이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이용자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과 대학에서 수행되는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정보학과 학부와 대학원에 개설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을 강의한 경험이 있는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문헌정보학과 대학 35개 중 학부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는 대학은 34개(97%), 교육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는 대학은 11개(31%), 일반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는 대학은 15개(43%)였다. 학부 과정에서는 평균 1.7개의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개설 과목이 1개 이하인 학교가 전체 대학의 36%이며,

학부와 대학원 모두 개설 과목이 대체로 ‘독서 지도론’에 편중되어 있었다.

설문 응답자 29명 중 자신이 담당하는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관한 내용을 가르친다고 응답한 이는 24명(83%)이었다. 세부 주제 영역 중 어린이청소년의 독서요구와 흥미, 독서 경향, 어린이청소년 책의 장르, 어린이청소년 책의 선정과 선정 기준, 연령에 따른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특징은 과반수의 교수자가 수업에서 다루고 있었고, 어린이청소년 책의 역사, 현재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평가와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 비도서 자료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영역이었다. 장르의 경우, 그림책, 어린이소설(동화), 옛이야기(전설과 신화), 지식정보책(논픽션), 청소년소설, 만화는 과반수 이상의 교수자가 수업에 포함하고 있었으며, 역사책, 인물이야기(전기), 동시 및 동요, 판타지소설, SF 소설은 반수 이하의 교수자만 수업에 포함하였다. 교수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장르는 그림책이었는데, 교육 과정 내에서 실습과 체험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르이며, 도서관 실무에 활용하기 좋은 매체이고, 독자층 스펙트럼이 가장 넓고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소홀한 장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부족한 수업 시간은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가르치며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자 29명 중 스스로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이는 7명(24%)이었다. 나머지 22명(76%)은 스스로 어린이청소년 문학

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인이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22명 중 8명이 스스로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전문가가 아니라고 응답함으로써 전문가 인식에 대한 혼란을 드러냈다. 면담 대상자 A와 D는 어린이청소년 문학과 관련한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강점을 문헌정보학 외부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내부에서 강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안타까워했다.

면담 대상자 모두와 설문 응답자의 약 30%가 문헌정보학과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육이 현장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움이 되는 지식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중심 교육의 기본은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독서 자료를 두루 이해하는 것이다. 교수자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독서 자료를 접하게 하기 위해 강의 외에도 토론, 스토리텔링 실습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문학과 독자의 관계를 예비 사서인 학생 스스로 경험해 보는 것이 이용자를 독서의 즐거움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책 리뷰를 쓰고 책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 노력했다. 면담 대상자들은 이를 통해 이용자의 독서력과 환경, 선호도, 요구가 각자 다르며 같은 책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감상이 나올 수 있다는,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의 핵심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가 남긴 코멘트 중에는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 내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이라는 세부 영역이 그 중요도

에 비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언급이 제법 있었다.

“문헌정보학과에서 그냥 그저 가볍게 다루고 아무나 비슷한 전공이면 가르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 그러나 어린이·청소년 시기의 독서지도 또는 어린이 서비스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간의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와 그 발달단계에 따른 알맞은 자료, 자료의 활용 방법 등 개인 인격체에 알맞은 맞춤형 지도와 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한다.” (설문 응답자 E)

“어린이·청소년 문학은 어렵지 않다는 편견으로 깊이가 있게 고민하지 않고 쉽게 보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설문 응답자 F)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무척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하는 영역인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고, 전공 교수도 많지 않아서 향후 학계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함.” (설문 응답자 G)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독서지도론과 어린이·청소년자료 등 어린이·청소년 문학과 관련된 교과목은 전임 교원이 아닌 시간강사가 강의하거나, 세부 전공이 다른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 기준 평균 1.7개인 적은 교과목수와 전임교원을 채용할 만큼 중요한 영역이 아니라는 편견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설문 응답자 E, F, G의 구체적인 코멘트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청소년 문학은 도서관에서 가장 많

이 대출되거나 관내 이용이 되며 도서관 프로그램에 자주 활용되는 자료이다. 도서관정보나 루 데이터에 의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9일까지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대출이 많이 된 책 200권 중 153권이 어린이·청소년 책이다. 무려 76.5%이다. 도서관 장서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집단이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들을 위한 장서와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문헌정보학과 대학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움을 넘어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의 변화를 제안한다.

첫째,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어린이·청소년자료’를 ‘어린이자료’와 ‘청소년자료’ 두 과목으로 분리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어린이자료’와 ‘청소년자료’가 각각 별개의 과목으로 개설될 경우, 교수자는 각 연령층의 발달 단계를 더 상세하게 다루며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어린이’라는 존재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영아와 유아가 다르고, 취학 전 아동과 취학 후 아동이 다르며, 저학년과 중학년, 고학년이 다르다는 것, 같은 연령에서도 어린이 개인에 따라 독서 흥미와 독서 역량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때 학생들은 다양한 개인을 위한 다양한 독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 집단 내의 차이도, 어린이와 청소년에 걸쳐 있는 ‘트윈(tween)’ 세대에 대한 이해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다. 이용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들을 위한 다양한 장르에 대한

정밀한 탐구 역시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논픽션은 독자에게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르인데, 어린이를 내포 독자로 하는 논픽션은 청소년을 내포 독자로 하는 논픽션에 비해 그림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형식이 많아 픽션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청소년을 내포 독자로 하는 논픽션에도 화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린이 논픽션에 비해 설명 형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청소년이 실제로 읽는 논픽션 중에는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아, 청소년의 독서를 다룰 때는 실제 청소년이 읽는 성인 대상 논픽션도 다루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자료'를 '어린이자료'와 '청소년자료'로 분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끝은 아니다. 더 나아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정보 행태에 대한 이해, 어린이 자료에 대한 이해, 청소년 자료에 대한 이해를 각각 상세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장르에 집중할 수업도 생각해 볼만하다. 어린이가 가장 선호하는 장르인 만화로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웹소설과 웹툰, 판타지와 SF 등 실제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읽는 장르를 중심으로 특강 형식의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다. 지금처럼 한 학기 수업 시간이 부족해 쫓기듯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갖고 이용자층에 대한 이해와 독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은 독자에게 독서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 “아무나”, “어렵지 않게” 가르칠 수 있다는

일부의 오해와 달리 어린이청소년 문학은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다. 어린이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그들의 문화에 관한 이해, 다양한 문학 장르에 관한 깊고 넓은 지식, 국문학, 문예창작학, 아동학 등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연구하는 타 학문과 문헌정보학의 연결 고리를 알고 타 학문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려는 자세, 새롭게 등장하는 좋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려는 노력 등이 뒷받침되었을 때 교수자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본 연구의 설문 응답에서도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교수자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 시간에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장르를 묻고 그 이유를 알려 달라고 했을 때 “(옛이야기는) 현시대에 어울리지 않거나 이미 충분히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창작동화의 발달로 (옛이야기로는) 흥미유발이 어려워서”, “SF 소설은 깊이 있는 사고 형성을 위해서는 타 자료에 비해 조금 못 미친다고 판단되어”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응답에서 보이는 편견과 달리, 옛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동화, 청소년소설, 판타지 소설, SF 소설 등 여러 장르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여러 세대를 거쳐 구전되어 오는 동안 축적된 삶의 지혜와 용기, 인생사의 회로애락이 지금 사람들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다. SF 소설은 현실과 다른 시공간에서 현실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사고와 통찰력이 필수적이다. 설문 응답 중에 “문헌정보학에서 이 분야를 전공하는 분이 가르치면 가장 좋지만, 학

과에 전공자가 없다면 문헌정보학 분야 외래 강사 혹은 어린이청소년 문학가 중에서 학위를 가지신 분이 강의해야 할 것이다. 공공 혹은 학교도서관 사서 중에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공부하는 분을 외래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공 혹은 학교도서관 사서 중에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전문가인 분들은 충분히 많을 것이며, 현재도 많은 대학에서 그런 전문가적 역량을 갖춘 분을 외래 강사로 초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면담대상자들은 대부분 독학으로 혹은 실무 경험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대한 전문가적 역량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문헌정보학과 대학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다른 곳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찾아낸 것이다. 만약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 문헌정보학과 대학 강단에서 꾸준히 강의하며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다면 학생들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전문성을 습득하고 현장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이 도서관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강조한 ‘현장 중심의 교육’은 학생이 졸업 후 사서가 되어 도서관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뜻한다. 이용자와 독서 자료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강의실 수업에서도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사서가 맞이하는 정보 요구와 그에 대한 대응은 현장 근무자에게서만 들을 수 있다. 도

서관 방문이나 사서 초청 강연 등을 통해 실제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독자 상담이나 독서 프로그램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졸업 후 든든히 준비된 상태로 도서관 현장에서 다양한 어린이청소년 이용자 각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에서는 문헌정보학과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관련 교과목이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육에 치중해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용자 대응 서비스 기술, 어린이청소년 전문 사서로서의 일상적인 사서 업무 등을 더 집중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Barriage, DiGiacomo, & Greenhalgh, 2022; Bernier, 2019). 그러나 이는 어린이청소년 문학에 대한 교육을 오랫동안 탄탄히 다져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의 기틀을 세운 Moore(1969, 66)가 “내가 최근에 직접 읽어보지 않은 책을 이용자들에게 권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고 다른 사서들에게도 그 원칙을 적용하게 한 이후 미국의 어린이청소년 담당 사서들은 자신이 서비스하는 독서 자료를 직접 읽고 감상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오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문학 교육을 넘어 다른 영역의 교육에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오랜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이 이용자와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서비스의 전통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11-137100-000154-10).
- 이연옥 (2005). 어린이사서의 역할과 전문성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233-256.
- 임정훈, 이승민, 강봉숙, 이병기 (2021). 계층분석방법을 활용한 사서교사 역량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2), 127-144. <https://doi.org/10.16981/kliss.52.2.202106.127>
- 정혜미, 차미경 (2007). 공공도서관 어린이사서를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161-181.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43호.
-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8547호.
- 한복희 (2010). 어린이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과 계속교육의 발전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267-288. <https://doi.org/10.4275/KSLIS.2010.44.3.267>
- Adkins, D. & Higgins, S. (2006). Education for library service to youth in five countries. *New Review of Children's Literature and Librarianship*, 12(1), 33-48. <https://doi.org/10.1080/13614540600563734>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0). Competencies for Librarians Serving Children in Libraries. Available: <https://www.ala.org/alsc/edcareers/alscorecomps>
- Barriage, S., DiGiacomo, D., & Greenhalgh, S. (2022). Thinking beyo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terdisciplinary inspiration for children and youth services curricula.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63(1), 1-18. <https://doi.org/10.3138/jelis-2020-0079>
- Bernier, A. (2019). Isn't it time for youth services instruction to grow up? From superstition to scholarship.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60(2), 118-138. <https://doi.org/10.3138/jelis.2018-0055>
- Brehm-Heeger, P. (2008). *Serving Urban Teens*. Westport, CT: Libraries Unlimited.
- Horikawa Teruyo (2005). *Jido Service-Ron*, New Revised Edition. Tokyo: Japan Library Association.
- 고향옥 옮김 (2007). *아동 서비스론*. 파주: (주)알마.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18). IFLA 0-18세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 지침. 제2판.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handle/123456789/660>
- Moore, A. C. (1969). *My Roads to Childhood: Views and Reviews of Children's Books*. Boston: Horn Book.

- Walter, V. A. (2001). *Children & Libraries: Getting It Right*. Chicago, IL: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Welch, C. C. (2014). What, and how, we teach now: Educating youth libraria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ren and Libraries: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 12(2), 3-8. <https://doi.org/10.5860/cal.12n2.0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Enforcement Decree for the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33343.
- Hahn, Bock-Hee (2010). Developing curricula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continuing education for children's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3), 267-288. <https://doi.org/10.4275/KSLIS.2010.44.3.267>
- Jeong, Hye-Mi & Cha, Mi-Kyeong (2007). A study on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develop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children's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8(2), 161-181.
- Lee, Yeon-Ok (2005). A study on the roles and development of professionalism of children's libraria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3), 233-256.
- Lim, Jeonghoon, Lee, Seung-Min, Kang, Bong-Suk, & Lee, ByeongKi (2021). A study on priority of teacher librarians' competencies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2), 127-144. <https://doi.org/10.16981/kliss.52.2.202106.127>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 2021 National Survey on Readingn (11-137100-000154-10).
-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Act No.18547.

[부록 1] 전국문헌정보학과 학부와 대학원 교육과정 중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교과목 현황(2023년 12월 기준)

번호	대학명	학부	교육대학원	일반대학원
1	건국대	독서지도론 독서치유론 아동및청소년자료		
2	경기대	독서교육 독서문화프로그램기획(캡스톤디자인) 독서치료 어린이청소년자료	독서지도특강	독서지도연구 독서지도특론 독서치료연구 어린이자료특론 어린이청소년자료연구 어린이청소년자료특론
3	경북대	독서지도론		
4	경성대	독서교육론 독서학개론 어린이서비스론		독서지도론연구 독서치료연구 독서학세미나
5	계명대	독서지도론 어린이청소년서비스론 어린이청소년자료론		독서지도연구 독서치료연구 어린이청소년서비스연구 어린이청소년자료연구
6	공주대	독서교육론 독서교육의실제 아동및청소년자료론	독서교육론 독서프로그램개발론 아동및청소년서비스론	독서교육론 독서교육프로그램개발론 독서요법과인성독서세미나 디지털독서론 아동및청소년자료론
7	광주대	독서지도론		
8	대구가톨릭대	독서지도론 아동청소년자료론		독서문화연구 독서지도론
9	대구대	독서지도 어린이서비스		독서치료특론
10	대림대	독서지도		
11	대진대	독서교육론	독서논술특강 독서지도론 독서치료특강 독서프로그램개발론	
12	덕성여대	독서지도론		
13	동덕여대	독서지도론		
14	동의대	독서지도론 독서활용교육론	독서지도교육론 독서프로그램개발론	독서치료세미나 어린이청소년도서관프로그램세미나
15	명지대	청소년독서교육	독서지도론세미나 학교교육과독서지도	독서지도론연구
16	부산대	독서지도론 어린이와청소년자료	독서지도교육론	
17	부산여대	독서교육프로그램운영론		

번호	대학명	학부	교육대학원	일반대학원
18	상명대	독서지도	독서지도론연구	독서지도론
19	서울여대	독서지도론		아동독서자료와정보서비스 아동청소년정보서비스 청소년독서자료와정보서비스
20	성균관대	독서지도론		
21	숙명여대	독서지도(디지털스토리텔링)		
22	숭의여대	독서문화프로그램기획 독서상담및프로그램운영		
23	신라대	독서지도론 어린이청소년자료	독서상담및프로그램운영 독서지도론 독서치료론	독서지도연구 어린이청소년자료연구
24	연세대		독서지도론 아동및청소년문학지도론	
25	이화여대	독서지도 아동청소년자료		
26	인천대	독서교육 어린이청소년자료		독서지도연구
27	전남대	독서경영론 독서지도론 독서지도실습 멀티미디어독서론		독서경영특론 독서교육이론 독서요법이론
28	전북대	독서교육론 독서치료 아동청소년정보	독서지도특강 독서치료세미나	독서지도특론 독서치료특론
29	전주대	독서교육		
30	중부대	독서지도론		
31	중앙대	독서지도론	독서교육론 독서지도론	
32	청주대	독서지도론		
33	충남대	독서지도입문		독서교육특론 독서치료특론
34	한남대	독서지도론 어린이청소년정보원		
35	한성대	어린이청소년도서큐레이션		

* 창원문성대는 2024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폐과 수순을 밟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음.